

나가사키노하나

‘나가사키노하나’는 야시마 최북단의 지명입니다. 세토 내해로 돌출된 작은 곳으로서 백사장이 있는 외딴 해수욕장 옆에 있습니다. 나가사키노하나에서 유카쿠테이라는 전망대까지는 약 30분 걸리는 산책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각도에서 야시마 꼭대기는 넓은 대지(臺地)처럼 보이는데, 나가사키노하나에서 보면 ‘유카쿠테이’는 뾰족한 산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

1853년, 미국이 일본에 서양과의 무역 개방을 요구한 뒤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의 해안 방위를 근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1863년 막부는 다카마쓰 번주에게 다카마쓰 항구를 지키기 위한 포대(砲臺)를 나가사키노하나에 만들도록 명하였습니다. 3층으로 지어진 이 포대에는 대포 6문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. 시설 자체는 없어졌지만, 포대를 설치했던 토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.